

가야사 속의 ‘연산동고분군’

유 우 창*

| 목 차 |

- I. 머리말
- II. 고구려남정과 독로국
- III. 신라의 독로국 병탄
- IV. 연산동고분군과 독로국
- V. 맺음말

| 국문초록 |

일제시기에 이미 극심한 도굴의 피해를 입었던 연산동고분군은 비록 1987년에 정식조사가 시작되었으나, 지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발굴되고 정비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연산동고분군은 6세기 전반이 되어서야 축조가 중단되었다고 한다.

문헌사학계나 고고학계나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결국 ‘독로국’이 언제 신라에 병탄되었는가 하는 문제인 듯하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도 독로국의 신라 편입시기를 문헌적 측면에서 추적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독로국은 삼한시대에 변한, 즉 가야를 구성하는 하나의 소국으로 출발하여 4세기까지 가락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성장하였다. ‘고구려남정’ 이후 독로국은 낙동강을 통하여 고구려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 복천동고분군에서 출

* 부산대학교 사학과 / hismajor@hanmail.net

토되는 고구려계 유물은 이를 방증한다. 신라와의 관계도 원만했던 것 같은데, 5세기 전반까지 복천동고분군에 여전히 왕릉급 고분이 축조되기 때문이다. 다만 가락국과는 어느 정도 정치적 거리를 둔 것 같다.

독로국은 6세기 전반인 529년이 되어서야 이사부에 의해 자신의 영역이었던 다다라를 신라에게 실함하였다. 그러나 곧바로 멸망되지는 않고, 가락국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과정을 거쳐 신라로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연산동고분군이 6세기 전반에 축조가 중단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연산동고분군은 현대 도심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봉분이 남아 있는 부산지역 유일의 삼국시대 고분군이다. 연산동고분군 축조세력은 독로국의 지배층이었고, 독로국은 가야를 이루는 구성원이었다. 이 말은 결국 연산동고분군이 ‘가야사 속’에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주제어 : 연산동고분군, 독로국, 이사부, 다다라, 병탄.

I. 머리말

중국의 문헌인 『三國志』에 의하면, 부산지역은 ‘加耶(聯盟)’을 구성하는 한 소국, 즉 ‘瀆盧國’으로 출발하였다.¹⁾ 그러나 우리의 문헌인 『三國史記』에 의하면, 부산지역의 가야, 즉 ‘居柒山國’은 끝까지 다른 가야 소국들과 운명을 함께 하지 못하고 新羅에 병탄되고 말았다.²⁾

1) 『三國志』 권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傳, “有 已柢國 不斯國 弁辰彌離彌東國 弁辰接塗國 …(中略)… 弁辰狗邪國 弁辰走漕馬國 弁辰安邪國 馬延國 弁辰瀆盧國 斯盧國 優由國 弁辰韓合二十四國.” ‘弁辰瀆盧國’에 대해서는 경남 거제설이 존재했으나, 부산 동래설이 대두한 이후 우세화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다시 거제설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백승옥, 『변. 진한 및 가야 신라의 경계』 『韓國古代史研究』 58, 2010, 69쪽). 이러한 거제설에 대하여 필자는 이미 전고에서 몇 개의 의문점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유우창, 『고대 부산지역사 연구현황과 과제』 『港都釜山』 23, 2007, 129~131쪽), 참조하기 바란다.

2) 『三國史記』 권44, 列傳 4, 居道傳, “居道 失其族姓 不知何所人也 仕脫解尼師今爲干

그런데 부산지역 가야의 국호가 둘이다. 하나는 ‘독로국’, 다른 하나는 ‘거칠산국’인 것이다. 왜 같은 시기 같은 지역을 가리키는 국호가 서로 다를까? 일찍이 정중환은 지금의 ‘동래’ 지명의 유래를 추적하면서 “거칠산은 혼역하면 지금의 황령산이 되므로 음역이든 혼역이든 동래란 말은 나올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런 까닭으로 그는 “동래란 말은 거칠산과는 전연 별도의 근거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유래를 ‘독로’에서 찾았다.³⁾

한편 『三國遺事』에는 부산지역의 또 다른 국명으로 菴山國과 萊山國이 출현한다.⁴⁾ 천관우의 해석에 의하면 ‘菴’과 ‘萊’는 둘 다 ‘居柒(거칠. 荒)’과 관련된다고 하니,⁵⁾ 이 두 국명은 ‘거칠산국’에서 파생된 것⁶⁾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논외로 한다.

본고에서는 부산지역의 가야에 대하여 ‘독로국’과 ‘거칠산국’ 중 어느 국명으로 부르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를 일단 점검해보고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부산지역 가야의 더 타당한 국명을 확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것은 김해지역 가야의 국명(지명) 변천과정이다.

김해의 경우, 三韓時代에 본인들이 스스로 표방했던 국호는 『駕洛國記』를 참조할 때 ‘가락’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⁷⁾ 이것이 중국인에게 전해져 『삼국지』에 ‘狗邪’로 표기되었다. ‘가락’ 혹은 ‘구야’는 그 후

時于尸山國 居柒山國 介居鄰境 頗爲國患 居道爲邊官 潛懷并吞之志 每年一度 集羣馬於張吐之野 使兵士騎之馳走 以爲戲樂 時人稱爲馬叔 兩國人習見之 以爲新羅常事 不以爲怪 於是 起兵馬 擊其不意 以滅二國.”

- 3) 丁仲煥, 『瀆盧國考』, 『白山學報』 8, 1970, 70쪽; 『加羅史研究』, 해안, 2000, 320쪽.
- 4) 『三國遺事』 권3, 塔像 4, 靈鷲寺條, “寺中古記云 新羅眞骨第三十一主神王代永淳二年癸未[本文云元年誤] 宰相忠元公菴山國[卽東萊縣 亦名萊山國]溫井沐浴.”
- 5) 千寬宇, 『辰·弁韓 諸國의 位置 試論』, 『白山學報』 20, 1976; 『加耶史研究』, 一潮閣, 1991, 67쪽.
- 6) 백승충, 『삼한시대 부산지역의 정치집단과 그 성격』, 『港都釜山』 18, 2002, 31쪽.
- 7) 『三國遺事』 권2, 紀異 2, 駕洛國記條, “國稱大駕洛又稱伽耶國.” 한편 ‘가락국’이란 ‘가라의 국’을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는데(남재우, 『가야, 그리고 사람들』, 선인, 2011, 29쪽), 음운학적 측면에서 전문적 연구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금관’이 되었다가⁸⁾ ‘김해’로 정착되었다.⁹⁾ 그런데 ‘금관’이나 ‘김해’는 모두 후세의 사람들, 즉 신라인이 붙인 명칭이다. 따라서 김해지역 가야의 국명은 ‘가락’으로 부르는 게 가장 바람직하며, 학계에서도 대체로 그렇게 부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부산지역에도 접목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부산의 경우, 삼한시대에 본인들이 스스로 표방했던 국호는 ‘독로’였다. 『가락국기』와 같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중국인이 표기한 ‘瀆廬’가 가장 가까운 형태일 것이다. 그런데 『삼국사기』는 이 지역의 국명을 ‘居柒山’으로 표기하고 있다. ‘거칠산’은 김해의 ‘금관’과 마찬가지로 신라인이 붙인 명칭으로 생각된다.¹⁰⁾ 따라서 본고에서는 신라에 병탄되기 전까지 이 지역 가야의 국명을 ‘독로국’으로 통일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삼국사기』 거도열전에 의하면, ‘거칠산국’, 즉 ‘독로국’은 신라 탈해왕 대인 1세기 후반에 신라의 邊官 거도에 의해 멸망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신라의 독로국 병탄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신라 탈해왕 대, 즉 1세기 후반이라는 그 紀年은 믿을 수 없다는 게 학계의 인식이다. 왜냐하면 1세기 후반, 즉 삼한시대에 신라가 과연 독로국을 멸망시킬 수 있었을 만큼 정복국가로서의 면모를 띠고 있었겠는가 하는 상식적 의문 때문이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세기 후반, 아주 우연히 ‘복천동고분군’이 발견

8) 6세기 전반 신라에 복속될 시기를 전후한 시기, 혹은 7세기 후반 무렵 신라에 소속된 구 김해 가야계 사람들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白承玉, 『加耶 各國史 研究』, 해안, 2003, 72~73쪽 참조). 결국 ‘금관’이라는 국명은 신라인들에 의해 주로 불린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9) 『三國史記』 권34, 雜誌 3, 地理 1, 新羅 金海小京條, “古金官國[一云伽落國 一云伽耶] 自始祖首露王 至十世仇亥王 以梁中大通四年 新羅法興王十九年 率百姓來降 以其地爲金官郡 文武王二十年 永隆元年爲小京 景德王改名金海京 今金州.”

10) 백승충, 앞의 논문, 2002, 36~37쪽 참조. 신라인이 거칠산국이라 부르기 전, 독로라는 국명이 다른 것으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파악할 수 없다.

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그 축조세력은 가락국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는데, ‘고구려남정’ 이후, 이전에 가락국과 맺은 연맹에서의 패권조차 넘겨받아 차지하고 있다(가¹⁾) 5세기 중엽 복천동 10·11호분을 끝으로 묘역이 부족해지자 인근의 연산동고분군으로 옮겨갔다고 한다.¹²⁾ 그리고 부산지역 유일의 봉분이 있는 ‘연산동고분군’이 지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발굴되고 정비되었는데,¹³⁾ 그 고총고분은 6세기 전반이 되어서야 축조가 중단되고 그때에 비로소 신라로 편입되었다고 한다.¹⁴⁾

이상을 돌이켜보건대, 문헌사학계나 고고학계나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결국 ‘독로국’이 언제 신라에 병탄되었는가 하는 문제인 듯하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도 학계의 경향에 보조를 맞추어 독로국이 신라로 편입된 시기를 문헌적 측면에서 추적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제1장에서는 ‘고구려남정’ 전후의 시기를 개괄하고 5세기대 독로국을 포함한 가야의 동향을 훑어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제2장에서는 신라의 독로국 병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장에서는 연산동고분군과 독로국이 ‘가야사 속’에서 차지하는 존재가치를 간단하게나마 음미해보고자 한다.

11) 申敬澈, 「金海大成洞·東萊福泉洞古墳群 點描」 『釜大史學』 19, 1995a, 42~49쪽.
 12) 申敬澈, 위의 논문, 45쪽; 「삼국 통일신라 고려시대의 동래」 『東萊區誌』, 1995b, 241쪽.
 13) 이미 1987년에 고분의 성격 파악을 위해 부산시에서 부산여자대학교박물관(현 신라대학교)과 부산산업대학교박물관(현 경성대학교)에 의뢰하여 4호분과 8호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봉토를 복원하여 정비하였다고 한다(福泉博物館, 『釜山蓮山洞遺蹟』, 福泉博物館 學術研究叢書 第15輯, 2003, 11쪽).
 14) 6세기 1/4분기에서 2/4분기(빠른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에 신라에 편입되었다고 한다(김두철, 「연산동고분군과 복천동고분군」 『연산동고분군의 의의와 평가』, 부산대학교 박물관, 2013, 185쪽).

II. 고구려남정과 독로국

5세기 대는 가야사의 변혁기였다. 그 변혁은 ‘高句麗南征’이라는 밖으로부터의 충격에 의하여 촉발되었다. 즉 ‘고구려남정’을 계기로 4세기까지 가야제국을 리드해갔던 가락국이 결정적으로 쇠퇴하게 되었고, 5세기 이후부터는 加羅國이 가야의 신흥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고구려남정’은 종래 가야제국의 정치적 역관계를 완전히 바꾸어버린 기폭제 구실을 했다고 할 수 있다.¹⁵⁾

독로국 또한 이 사건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인데, 아래에서는 ‘고구려남정’을 전후한 시기에 가야를 둘러싼 정세가 어떻게 변화해갔는지 통시적으로 개괄하고자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독로국의 사정 또한 어렵겠하나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이다.

4세기 초, 고구려는 樂浪·帶方을 한반도로부터 축출하였다.¹⁶⁾ 고구려의 낙랑·대방지역 점령은 그들과의 교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한반도 남부의 여러 정치체들에게 커다란 혼란과 타격을 주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정치체로 삼한을 들 수 있겠는데, 특히 변한, 즉 가야는 당장 교역의 주 수입원이자, 또 선진문물 수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창구를 잃게 되었던 것이다. 한반도 서북부로부터의 낙랑·대방 퇴축이 변한에 속했던 독로국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자명하다.

4세기가 중반으로 향해가던 무렵인 342년(고국원왕 12)에 고구려는

15) 한편 이와 같은 논의에 대하여, ‘고구려남정’을 과도하게 평가한다고 하여 ‘남정론’이라 명명하고 비판한 견해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朱甫暉, 『高句麗南進의 性格과 그 影響』 『大丘史學』 82, 2006, 3~24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16) 『三國史記』 권17, 高句麗本紀 5, 美川王 14년조 및 15년조. 『資治通鑑』 권88, 晉紀 10 孝愍上 建興元年條, “遼東張統 據樂浪帶方二郡 與高句麗王乙弗利 相攻 連年不解 樂浪王遵 說統 帥其民千餘家 歸虜 虜爲之 置樂浪郡 以統爲太守 遵參軍事.”

前燕으로부터 강력한 공격을 받았다. 이때 고구려가 입었던 피해는 매우 컸는데, 미천왕의 능이 파헤쳐져 시신이 반출되었고, 왕모·왕비를 포함하여 남녀 5만여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 더욱이 국내성과 환도성이 불타버리거나 파손되어¹⁷⁾ 도읍이 황폐화되었다.

이와 같은 국난에 봉착하여 고구려는 전연과 화친을 도모했으며,¹⁸⁾ 이로 말미암아 서진정책을 일시 중단하고 남진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이때 공격의 주목포는 百濟였는데, 마침내 4세기 후반인 369년에 帶方故地, 371년에 樂浪故地를 사이에 두고 두 나라는 상호간에 대군을 동원하여 영역쟁탈전을 펼쳤다.¹⁹⁾

백제는 고구려와 두 차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미 자신과 경계를 접하고 있던 가야 및 신라와 통교하였다.²⁰⁾ 그럼으로써 백제는 對高句麗戰에 국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양 전쟁에서 완승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372년이 되자 백제는 東晋²¹⁾과 倭²²⁾ 등 한반도 밖의 정치세력과도

- 17) 『晋書』 권109, 載記 9, 慕容皝, 咸康 7년조. 『魏書』 권95, 列傳 83, 慕容元眞, 建國 4년조 및 권100, 列傳 88, 高句麗, 建國 4년조. 『梁書』 권54, 列傳 48, 諸夷 高句麗. 『通典』 권186, 邊防 2, 東夷下 高句麗. 『資治通鑑』 권97, 晉紀 19, 顯宗下 咸康 8년 10월조. 『三國史記』 권18, 高句麗本紀 6, 故國原王 12년조.
- 18) 『晋書』 권109, 載記 9, 慕容皝, 咸康 8년조 및 권110, 載記 10, 慕容儁. 『資治通鑑』 권 97, 晉紀 19, 康帝 建元 원년조 및 권100, 晉紀 22 孝宗中之下 永和 11년 2월조. 『三國史記』 권18, 高句麗本紀 6, 故國原王 13년조·15년조·19년조·25년조.
- 19) 『三國史記』 권18, 高句麗本紀 6, 故國原王 39년조·41년조 및 권24, 百濟本紀 2, 近肖古王 26년조. 이 당시 고구려와 백제 사이의 영역쟁탈전에 관해서는 유우창, 「4세기 후반 가야 백제-왜 동맹의 결성」, 『지역과 역사』 36, 2015, 65~72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 20) 백제와 가야의 통교는 『日本書紀』 권9, 神功紀 46년 3월조를 참조하고, 백제와 신라의 통교는 『三國史記』 권24, 百濟本紀 2, 近肖古王 21년조·23년조 및 권3, 新羅本紀 3, 奈勿尼斯今 11년조·13년조를 참조하기 바란다.
- 21) 『晋書』 권9, 帝紀 9, 簡文帝 咸安 2년 정월조·6월조. 『三國史記』 권24, 百濟本紀 2, 近肖古王 27년 정월조 및 28년 2월조.
- 22) 『日本書紀』 권9, 神功紀 52년 9월조.

폭넓은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특히 왜와는 七支刀 賜與²³⁾를 매개로 공식적인 수교를 완료함으로써, 이른바 ‘백제-가야-왜’ 연합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런데 373년이 되면서 백제의 독산성주가 신라로 투항하는 사태가 일어났다.²⁴⁾ 대체로 이 사건을 계기로 366년~368년에 걸쳐 맺어졌던 백제와 신라간의 화친관계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²⁵⁾ 신라가 백제와의 화친관계를 청산하자, 고구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377년에 신라와 함께 前秦에 사신을 파견하고 있다.²⁶⁾ 신라의 지리적 위치나 당시 국제 정세를 감안해 볼 때 신라의 사신은 고구려를 따라 갔거나²⁷⁾ 적어도 고구려의 도움이 있었을 것²⁸⁾으로 보인다.²⁹⁾ 고구려는 신라를 자국의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이후 고구려는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실성을 볼모로 받아들였다.³⁰⁾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어렵게 맺은 신라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였고, 뿐 아니라 ‘백제-가야-왜’ 연합 체제에

23) 본고는 칠지도를 백제가 왜에게 하사하였다고 보는 설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七支刀銘文』 중 ‘傳示後世’는 자못 명명조로서 ‘칠지도 백제하사설’의 결정적 문구이다. 따라서 상위자인 백제가 하위자인 왜에게 이 칼을 하사했음이 명백하다(유우창, 앞의 논문, 2015, 77~78쪽).

24)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 3, 奈勿尼師今 18년조.

25) 盧重國, 『高句麗, 百濟, 新羅 사이의 力關係變化에 대한 一考察』 『東方學志』 28, 1981, 53쪽. 鄭雲龍, 『羅濟同盟期 新羅와 百濟 關係』 『白山學報』 46, 1996, 100쪽. 孔錫龜, 『高句麗 領域擴張史 研究』, 書景文化社, 1998, 204~205쪽.

26) 『三國史記』 권18, 高句麗本紀 6, 小獸林王 7년조, “遣使入苻秦朝貢.” 『資治通鑑』 권 104, 晉紀 26, 烈宗上之中 太元 2년조, “春 高句麗新羅西南夷 皆遣使入貢于秦.”

27) 末松保和, 『新羅史의 諸問題』, 東洋文庫, 1954, 118쪽. 李丙燾, 『韓國史』 [古代篇], 乙酉文化社, 1959, 401쪽. 李弘植, 『韓國古代史의 研究』, 新丘文化社, 1971, 437쪽.

28) 盧重國, 앞의 논문, 1981, 58~59쪽. 宣石悅, 『新羅國家 成立過程研究』, 혜안, 2001, 146~147쪽.

29) 381년(혹은 382년)이 되면 신라의 사신 衛頭가 前秦에 파견되어 황제 苻堅과 함께 신라의 정세를 논하게 된다(『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 3, 奈勿尼師今 26년조. 『太平御覽』 권781, 四夷部 2, 東夷 新羅). 위두 또한 377년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진에 갔을 것이다.

30) 『三國史記』 권18, 高句麗本紀 6, 故國壤王 9년조. 『광개토왕릉비문』에 의거 고국양왕 9년은 광개토왕 2년으로 수정해야 한다.

맞서는 ‘고구려-신라’ 연합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400년에 있었던 ‘고구려남정’은 이 두 연합 체제가 한반도 남부에서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었다. 『광개토왕릉비문』에 의하면, 399년에 백제의 사주를 받은 왜³¹⁾가 가야와 함께 신라를 매우 강하게 공격하였다. 미증유의 국난에 처한 신라의 나물왕은 공고톱게도 평양에 순수해와 있던 고구려 광개토왕에게 사신을 파견하여 위급에 처한 상황을 알리고 도와줄 것을 호소하였다. 신라의 호소에 응하여 고구려는 다음해에 보기 5만이라는 당시로서는 압도적인 병력을 파견하여 왜군을 궤멸시켰다. 일단 신라는 왜군의 일방적 침공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승세를 탄 고구려군은 그 여세를 몰아 패주하는 왜군을 추격하여 ‘임나가라’ 즉 가라국³²⁾에까지 도달하였다. 가라국은 고구려의 압도적 병력 앞에 즉각 ‘귀복’하였다.³³⁾

‘귀복’은 ‘자발적으로 복종하다’라는 뜻의 용어이다.³⁴⁾ 당시 고구려 병력에 저항하지 않고 ‘귀복’을 단행한 가라국의 용단에 대하여 414년 무렵 고구려의 공식입장은 매우 호의적인 것이었다. 이미 ‘귀복’이라는 말 자체에서 5세기 대에는 가라국과 고구려 사이가 우호관계에 있었음을 간취할 수 있는 것이다.³⁵⁾ ‘고구려남정’이라는 곡절을 겪으면

31) 鈴木英夫, 『加耶 百濟と倭』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 1987, 70쪽. 金泰植, 『廣開土王陵碑文의 任那加羅와 ‘安羅人戍兵』 『韓國古代史論叢』 6, 1994, 93쪽. 白承忠, 『加耶의 地域聯盟史 研究』,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5, 141쪽.

32) 임나가라 위치에 대한 제설은 白承玉, 앞의 책, 2003, 89~100쪽 참조. 본고는 ‘임나가라’를 고려지역의 가라국에 비정하는 설을 따른다(유우창, 『고구려 남정 이후 가라국과 신라 관계의 변화』 『韓國古代史研究』 59, 2010, 130~145쪽).

33) 『廣開土王陵碑文』 9년 己亥(399년)조, “百殘違誓 與倭和通 王巡下平穰 而新羅遣使 白王云 倭人滿其國境 潰破城池 以奴客爲民 歸王聽命 太王恩慈 稱其忠誠 特遣使還 告以密計” / 10년 庚子(400년)조, “教遣步騎五萬往救新羅 從男居城至新羅城 倭滿其中 官軍方至 倭賊退 自倭背急追至任那加羅從拔城 城即歸服.” 이상의 釋文은 王健群著/林東錫譯, 『廣開土王碑研究』, 역민사, 1985, 260~261쪽을 따랐다.

34) 武田幸男,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1989, 136~148쪽 및 165쪽 참조.

35) 白承忠, 앞의 박사학위논문, 1995, 147쪽의 주 153. 한편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서 가라국은 ‘백제-가야 왜 연합’에서 빠져나와 고구려와 우호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관계는 5세기 후반 가라국이 백제와 함께 신라를 도와 신라를 공격한 고구려군을 축출하는 시기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와 새롭게 우호관계를 맺은 가라국은 신라와도 자연스럽게 관계가 개선되었던 듯하다. 다만 고구려남정 직후 가라국과 신라의 관계는 전해오는 기록의 결핍으로 명확히 알 수 없으나, 5세기의 상당한 기간 동안 우호관계에 있었던 것 같다.

『일본서기』 웅략기 8년조에 의하면 464년 고구려의 침공을 받은 신라가 임나왕,³⁶⁾ 즉 가라국왕에게 구원군을 요청한 바가 있었다. 가라국과 신라는 국가적 위난에 처했을 때 구원군을 요청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당시 신라의 구원요청에 가라국의 적극적 파병은 없었다.³⁷⁾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후 가라국과 신라는 적어도 우호관계를 유지하였던 듯하다.³⁸⁾ 이와 같은 양국의

4. 智證麻立干 13년 6월조에 의하면, 신라와 우산국 사이의 우호관계에서도 ‘歸服’이라는 용어가 介在 되어 있다.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 신라에 ‘귀복’한 우산국의 의무는 해마다 신라에게 ‘土宜’를 바치는 일이었다. 가라국 또한 고구려에 ‘귀복’함으로써, 해마다 고구려에게 토산물을 바쳤고, 이를 매개로 가라국과 고구려는 우호관계를 맺고 유지하였을 것이다(유우창, 『‘가야-고구려 동맹’의 형성과 추이』 『역사와 세계』 44, 2013, 15~18쪽).

36) 464년이라는 시기로 보아 본고에서는 일단 가라국의 왕으로 간주한다(유우창, 『5~6세기 ‘나제동맹’의 전개와 가야의 대응』 『역사와 경계』 72, 2009, 130쪽 주 5).

37) 임나왕은 倭將인 膳臣班鳩 등 3인에게 신라를 구원해 줄 것을 권하기만 할 뿐 직접 자국의 군사를 파견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때에 왜군이 신라에 들어와 고구려군을 격퇴한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3, 訖祇麻立干 24년, “倭人侵南邊 掠取生口而去 夏六月 又侵東邊”, 동 28년, “夏四月 倭兵圍金城十日, 糧盡乃歸”, 慈悲麻立干 2년, “夏四月 倭人以兵船百餘艘 襲東邊 進圍月城 四面矢石如雨 王城守 賊將退 出兵擊敗之 追北至海口 賊溺死者過半”, 동 5년, “夏五月 倭人襲破活開城 虜人一千而去”, 동 6년, “春二月, 倭人侵欲良城 不克而去 王命伐智德智 領兵伏候於路 要擊大敗之 王以倭人屢侵疆場 緣邊築二城”했다는 기록 등에 의하면, 눌지왕과 자비왕 시기 동안 왜가 신라를 줄기차게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므로 이 무렵 왜가 신라에 원병을 파견하여 구원해주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부정될 수밖에 없다.

우호관계는 481년 고구려가 말갈을 대동하여 신라를 공격해 오자 마침내 가락국의 참전³⁹⁾으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가락국은 5세기를 통하여 신라와 대체적으로 우호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고구려남정’ 직후인 5세기 초의 가락국과 신라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가락국은 낙동강하류를 사이에 두고 독로국과 서로 마주하는 형세의 나라였다. 가락국은 대국으로서 4세기까지 가야의 중심국이었고, 독로국은 그보다 소국이었다. 가락국의 영도에 부수될 수밖에 없었던 존재로 보인다. 따라서 가락국과 신라 관계의 추이에 따라 독로국과 신라의 관계도 상당부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고구려남정’ 직후의 신라왕은 실성왕이었다. 실성왕은 고구려 국왕의 지지에 의해 왕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신라는 고구려와 우호관계를 돈독히 해야 했으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실성왕은 고구려에 직접 들어가 조공하기도 했고,⁴⁰⁾ 고구려의 요청으로 평양에 교각건설 공인을 파견하기도 했으며,⁴¹⁾ 나물왕의 아들 복호를 고구려에 볼모로 보내기도 했던 것이다.⁴²⁾ 이와 같은 신라의 성의 표시는 고구려로부터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 매우 호의적인 정책을 이끌어냈던 것으로 이해된다. 『중원고구려비문』의 ‘新羅土內幢主’,⁴³⁾ 그리고 대마도를 정벌하려

38)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 3, 炤知麻立干 18년 2월조, “加耶國送白雉 尾長五尺.” 적어도 이때까지 가락국과 신라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39)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 3, 炤知麻立干 3년조.

40) 『廣開土王陵碑文』 十年庚子, “昔新羅寐錦 未有身來論事 □□□□廣開土境好太王 □□□□寐錦□家僕勾請□□□朝貢.” 앞의 매금은 나물왕이지만, 뒤의 매금은 실성왕일 것이다(朱甫暉, 『朴堤上和 5세기 초 新羅의 政治 動向』 『慶北史學』 21, 1988, 839~840쪽, 앞의 논문, 2006, 49~51쪽).

41)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 3, 實聖尼師今 12년 8월조, “新成平壤州大橋.” 이 기록에 대한 분석은 유우창, 앞의 논문, 2010, 150~151쪽 참조.

42)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 3, 實聖尼斯今 11년조, “以奈勿子卜好質於高句麗.”

43) 고구려가 그저 신라의 내정만을 간섭하기 위해 신라의 영토 안에 자국의 군대를 주둔시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했던⁴⁴⁾ 실성왕의 군사적 자신감은 이를 잘 암시한다고 생각한다.

신라는 실성왕 치세 동안 10여 년 정도는 백제나 왜의 침략에 대비하여 내정에 충실을 다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구려의 군사적 도움과 내정의 충실을 이룬 다음에야 신라는 다시 적극적 대외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가락국이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가락국과는 5세기 동안 우호관계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장에는 공격할 이유가 없었고, 한편 백제가 변방을 공격⁴⁵⁾해 들어왔을 뿐 아니라 왜조차도 명활성을 공격해⁴⁶⁾ 신라로서는 이들을 방어하는데 급급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라는 415년이 되면, 7월에 穴城의 들판에서 군사검열을, 왕성 정문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⁴⁷⁾ 그리고 다음 달에는 왜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였다.⁴⁸⁾ 향후 인근 지역에 대한 신라의 공세적 자세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라 여겨지는데, 신라의 군사적 발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 이와 같은 발전에는 고구려의 ‘신라토내당주’와 그들이 모집, 조직한 신라인들로 구성된 ‘新羅土內衆人’⁴⁹⁾이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⁵⁰⁾

44)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 3, 實聖尼斯今 7년 2월조, “王聞倭人於對馬島置營 貯以兵革資糧 以謨襲我 我欲先其未發 揀精兵 擊破兵儲.”

45)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 3, 實聖尼斯今 2년 7월조 및 『三國史記』 권25, 百濟本紀 3, 阿莘王 12년 7월조.

46)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 3, 實聖尼師今 4년 4월조, “倭兵來攻明活城 不克而歸 王率騎兵 要之獨山之南 再戰破之 殺獲三百餘級.”

47)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 3, 實聖尼斯今 14년 7월조, “大閱於穴城原 又御金城南門觀射.”

48)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 3, 實聖尼斯今 14년 8월조, “與倭人戰於風島克之.”

49) 武田幸男, 『序說 五~六世紀東アジア史の一視點』, 『朝鮮三國と倭國』(日本古代史講座 第4卷), 學生社, 1980, 18쪽.

50) 신라의 영토 안에 주둔한 고구려 군부대의 지휘관인 ‘신라토내당주’(李基白, 『中原高句麗碑의 몇 가지 問題』, 『史學志』 13, 1979, 38쪽)의 역할 중 하나로서 신라에 군사적 조언을 한 것이 ‘신라토내중인’의 모집이라는 결과(武田幸男, 위의 논문, 17~18쪽. 李鎔賢, 『中原高句麗碑와 新羅의 諸碑』, 『高句麗研究』 10, 2000, 454쪽. 徐榮一,

공세적 전환을 위해 훈련과 실전을 경험한 신라는 가락국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 같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의하면, 좌지왕 때 계림국, 즉 신라가 가락국을 정벌하고자 했다고 한다.⁵¹⁾ 좌지왕의 재위기간은 407년~421년이기 때문에 시기상 대체로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성왕 치세의 신라는 가락국을 완벽히 제압하지 못했던 것 같다. 『가락국기』는 신라의 가락국에 대한 정벌의 의지는 보여줄지언정 실제로 그 정벌이 행해졌는지의 여부조차도 불명확하다. 따라서 문헌적으로 실성왕 대 신라의 가락국 공격을 장담할 수는 없다. 신라의 가락국 공격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김해지역에서 출토된 신라계통의 유물들이다.

5세기 초 이후 ‘신라토기’가 본격 출토되는 김해 예안리·가달유적의 사례를 통하여 신라가 ‘고구려남정’을 거지면서 김해 전체는 아니더라도 예안리와 가달지역을 완전 장악하여 가락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⁵²⁾ 출토된 유물의 편년에 정확성이 담보된다면 그 시기는 실성왕 재위 때가 분명하며, 실성왕 대 신라가 가락국을 정벌하고자 했다는 『가락국기』의 내용과 일정부분 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고구려남정’ 이후 독로국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광개토왕릉비문』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서에도 이 무렵 독로국의 사정을 전하는 기록은 없다. 독로국이 처한 지리적 여건으로 보더라도 고구려군의 직접적인 군사행동이 독로국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⁵³⁾ 다만

『中原高句麗碑에 나타난 高句麗 城과 關防體系』, 『高句麗研究』 10, 2000, 509쪽)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신라토내당주’는 그들의 선발만 담당할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도 담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51) 『三國遺事』 권2, 紀異 2, 駕洛國記條, “雞林國以謀欲伐.”

52) 李熙濬, 『김해 禮安里 유적과 新羅의 낙동강 西岸 진출』, 『韓國考古學報』 39, 1998, 143~148쪽.

53) 학계의 통설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임나가라=김해 가락국’ 설을 따를 경우는 달리 생

‘고구려남정’ 이후 고구려는 가락국이나 신라와 우호관계에 있었고 신라의 영역에 자국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으므로 낙동강을 수시로 이용했을 것이다.⁵⁴⁾ 낙동강에 면하여 자리하고 있던 독로국도 고구려의 영향력-그것이 군사적이든 문화적이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 같다. 복천동고분군에서 출토된 많은 수의 고구려계 유물들⁵⁵⁾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수용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 독로국과 신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고구려남정’ 이전 가야의 중심국은 가락국이었다. 이점에 대해서는 학계의 이견이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세기까지 독로국은 이른바 ‘대국’이었던 가락국을 중심으로 한 가야의 한 ‘소국’으로 존재했었다. 따라서 다른 어떤 가야 소국보다도 지리적으로 인접한 가락국의 행보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물며 4세기대는 가락국의 전성기로 칭해지는 시기였다.⁵⁶⁾ 복천동고분군의 경우도 38호분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왕릉급⁵⁷⁾ 고분이 축조된다.⁵⁸⁾ 다만 ‘고구려남정’ 이후가 되면 두 국의 향방이 달라지는데, 가락국은 신라로부터 점진적으로 군사적 공격을 받아 급기야 대성동고분군의 축조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지만, 복천동고분군의 경우 5세기 전반까지는 여전히 왕릉급 고분이 축조되는 것⁵⁹⁾으로 보아 독로국은 신라와의 관계가 원만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각할 수 있을 것이다.

54) 고구려의 남정이 종식된 이후 5세기에 들어서면 낙동강은 당시 가락국 및 신라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고구려에게조차 개방된 상태였고, 고구려는 낙동강을 ‘水路’로 이용하여 중류 및 하류를 빈번히 왕래하였을 것으로 본다(유우창, 『6세기 전반 가락과 ‘나제동맹’의 대립』, 『역사와 세계』 41, 2012, 52쪽).

55) 특히 고구려의 무장을 적극 수용한다고 하는데, 찰갑의 변화나 마주, 마갑의 채용으로 진정한 중장기병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도 이 시점이라 한다(김두철, 앞의 논문, 2013, 172쪽).

56) 조원영, 『가야, 그 끝나지 않은 신화』, 해안, 2008, 128쪽.

57) 『三國志』 권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傳, “弁辰亦十二國…(中略)…十二國亦有王.”

58)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부산의 역사와 복천동고분군』, 1996, 157쪽.

짐이 ‘고구려남정’ 이후 가락국과 독로국의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⁶⁰⁾

Ⅲ. 신라의 독로국 병탄

4세기 대까지 이른바 전기가야의 맹주적 역할을 담당했던 가락국은 5세기가 되면 고구려의 군사적 조연 혹은 직접적 군사력을 등에 업은 신라⁶¹⁾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결국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가락국의 쇠퇴는 낙동강 대안의 독로국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신라의 가락국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직접 목격했을 독로국은 일단 가락국과 정치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⁶²⁾

반면에 신라와는 가급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온 힘을 다 하였던 것 같다. 왜냐하면 고구려의 도움에 힘입은 신라의 군사적 도약은 독로국으로 하여금 자신도 조만간 가락국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위기의

59) 대성동의 고분축조 중단 시기인 5세기 2/4분기에 복천동은 오히려 최성기의 양상을 보이는데, 이때의 대표 수장묘가 복천동 21·22호분이라고 한다(김두철, 앞의 논문, 2013, 172쪽).

60)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성동고분군과 복천동고분군 간에는, 문화적 측면에서 전자에서 후자로의 계승관계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적어도 ‘고구려남정’ 이전까지 외절구연고배로 대표되는 토기문화의 공유, 순장습속, 질적이나 수적으로 차이가 있을지라도 양 고분군 부장유물의 상호유사성 등(申敬澈, 앞의 논문, 1995a, 24~29쪽 참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61) 이영식, 『문헌으로 본 가락국사』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해안, 2000, 30쪽. 朱甫暉, 앞의 논문, 2006, 58쪽.

62) 복천동고분과 김해 대성동고분의 조영과 추이 및 고구려 남정을 참고해 볼 때, 독로국은 적어도 5세기대에는 가락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성을 가짐과 동시에 향후 신라와 정치·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전개한다고 하는데(백승충, 앞의 논문, 2002, 62쪽), 본고에서도 공감하는 바이다.

식을 품게 하는데 충분히 위협적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⁶³⁾

이상의 추정을 염두에 두면서 본고에서는 몇 개의 사료에 대하여 나름의 분석을 가하면서 신라가 독로국을 병탄하는 과정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A-① 居道는 그 族姓을 잃어버렸으므로 어느 곳 사람인지 알 수 없다. 탈해이사금 때에 벼슬하여 干이 되었다. 이 때 于尸山國과 居柒山國이 이웃 지경에 끼어 있었는데 자못 나라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거도는 邊官이 되어 몰래 이를 并呑할 뜻을 품고 있었다. 해마다 한번씩 많은 말을 張吐의 별판에 모아서 군사들로 하여금 타고 달려 이를 놀이로 여기게 하니 그 때 사람들은 馬叔이라 일컬었다. 두 나라 사람들은 이를 익혀 보고는 신라에서 늘 하는 일이라 하여 괴이히 여기지 않았더니 이에 兵馬를 일으켜 그들이 준비하지 않은 기회에 쳐서 두 나라를 멸망시켰다. (『삼국사기』 권44, 열전 4, 거도)

위 사료의 내용은 탈해왕 때인 1세기 후반에 신라가 이웃나라 들을 군사적으로 정복했다는 것으로,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보이지 않는 신라 최초의 대외진출 활동이라 한다.⁶⁴⁾ 이 기사의 ‘우시산국’은 현재의 울산, ‘거칠산국’은 독로국을 신라인이 부른 이름으로 동래, 즉 지금의 부산을 일컫는다. 따라서 ‘우시산국’은 논외로 돌리고, 독로국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시켜나가고자 한다.

위 사료는 종래부터 거듭 지적되어 온대로, 사건발생의 紀年이 가장

63) ‘고구려남정’을 계기로 하여 남해안 교역체계가 붕괴되면서 가락국과 독로국을 주축으로 하는 낙동강 하류유역의 연맹관계가 와해되었으며, 고구려 지원하의 신라가 낙동강 하류역으로 진출하자 독로국은 자구책을 강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선석열, 『가야시대 부산의 대외교류』 『港都釜山』 18, 2002, 319쪽), 본고에서도 역시 공감하는 바이다.

64) 이형우, 「진·변한 諸國의 位置와 存在樣態」 『진·변한사연구』, 경상북도·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2, 91쪽.

큰 문제가 된다. 1세기 후반이라는 시기는 ‘삼한시대’의 중반쯤을 향해 가는 때로, 3세기 대의 한반도 사정을 전하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 조에는 독로국이 변한 12개국 중 하나로 의연히 나열되어 있으므로,⁶⁵⁾ 일단 모순이다. 더욱이 신라의 경우, 탈해왕 대에는 인근지역과의 전투 기록이 빈번하게 보이고, 백제와의 교섭·전투 기사도 보이기는⁶⁶⁾ 하지만, 정복활동을 벌인 일은 없다고 한다.⁶⁷⁾ 달리 말해, 탈해왕 대에는 신라가 대외진출을 시도할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다.⁶⁸⁾ 따라서 탈해왕 대의 신라가 독로국에 대한 정복활동을 단행한 듯한 위의 기록은 믿기 곤란하며,⁶⁹⁾ 그저 독로국이 1세기 무렵부터 신라와 밀접한 관계에 놓이게 된 사실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함⁷⁰⁾이 타당할 듯하다.⁷¹⁾

한편 독로국을 멸망시키는데, 공을 세웠다는 居道는 어떠한 사람일까? 거도는 ‘干’이 되었다고 한다. 사료상 그가 간이 되어 관할한 지역은 분명하지 않다. 그가 우시산국의 간이 되었는지, 거칠산국, 즉 독로국의 간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외 다른 지역의 간이 되었는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위 사료의 문맥을 유심히 음미해보면 그가 간이었다는 지역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독로국 지역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그의 또 다른 지위로 ‘변관’이 보이기 때문이다. 즉 독로국을 병탄할 때 그의 지위는 ‘간’이 아니라 신라의 ‘변관’이었던 것이다.⁷²⁾ 독로

65) 주 1) 참조.

66) 李宇泰, 「신라의 성립과 발전」 『한국사』 7, 국사편찬위원회, 1997, 39쪽.

67) 千寬宇, 「三韓攷 第3部」 『韓國學報』 2·3합, 1976; 『古朝鮮史 三韓史研究』, 一潮閣, 1989, 291쪽.

68) 이형우, 앞의 논문, 2002, 92쪽.

69) 千寬宇, 앞의 책, 1989, 291~292쪽.

70) 鄭澄源,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부산의 역사』, 부산시, 1978, 14쪽.

71) 『三國志』 권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傳, “弁辰與辰韓雜居 … 衣服居處與辰韓同 言語法俗相似 …”

72) 박제상의 경우를 거도에 그대로 적용시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참고는 되는데, 그의 지위가 ‘간’이었다면 재지세력이라 할 수 있고, ‘변관’이었다면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라는 해석이 된다(선석열, 「신라의 지방통치과정과 연산동고분군」

국을 병탄한 공으로 거도는 신라 조정으로부터 독로국 지역의 ‘간’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닐까?⁷³⁾

신라의 변관인 거도가 독로국 사람들을 속였다는 기이한 계책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단 ‘馬叔’이라는 명칭이 흥미를 끈다. 거도는 군사들에게 말 달리는 놀이를 시켰다고 하는데, 당시 사람들이 ‘마숙’이라 칭한 대상이 ‘놀이’인지, 혹은 ‘말달리는 군사들’인지 아니면 ‘거도’ 자체인지 분명치 않다. 본고는 일단 휘하 군사들에게 이 놀이를 하게끔 명령한 사람인 거도를 당시 독로국인들이 ‘마숙’이라고 불렀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叔’자의 사전적 의미는 ‘아재비’로 아버지의 아우를 뜻하기⁷⁴⁾ 때문이다. 매우 친근한 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신라측이 독로국을 기만한 셈이지만, 반대로 독로국의 경우는 신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다는 ‘흔적’이 바로 ‘숙’자가 아닌가 여겨진다.⁷⁵⁾

그러면 독로국이 신라에 병탄된 것은 과연 언제일까? 종래부터 이 문제는 학계의 화두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 까닭은 위 사료의 신빙할 수 없는 기년 때문이었다. 본고에서도 위 기록의 기년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독로국은 ‘고구려남정’ 이후에도 건재하였으며, 가락국을 압박하고 있던 신라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척 노력하고 있

『연산동 고총고분과 그 피장자들』, 부산대학교박물관, 2016, 17쪽 참조.

73) 거도의 출자를 동래출신, 더 구체적으로 동래 거제동(지금은 연제구에 속함)까지로 추정할 견해가 있다(丁仲煥, 앞의 논문, 1970, 67~68쪽; 앞의 책, 2000, 318쪽).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이 추정은 ‘居道’라는 이름 그 자체를 ‘거칠부’와 ‘거칠산’, 그리고 현대의 ‘거제동’과 결부시켜 결론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선뜻 동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정은 그 나름의 의미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또한 음운학적 측면에서 전문적 연구가 필요한 문제라고 본다.

74) 民衆書林編輯局, 『漢韓大字典』(제2판), 民衆書林, 1997, 360쪽.

75) 따라서 ‘마숙’이라는 용어는 전술한 바 5세기 이후에도 여전히 왕릉급 고분이 축조되는 복천동고분군 및 후술할 바 6세기 전반까지 왕릉급 고분이 축조되는 연산동고분군에서 출토되는 신라계 유물들과 더불어 간접적으로나마 병탄되기 전 독로국과 신라의 우호적 관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었던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A-② 新羅王이 汗禮斯伐·毛麻利叱智·富羅母智 등을 보내어 朝貢 하였다. 또한 앞서 인질로 보낸 微叱許智伐旱을 되돌려 보내려는 사정도 있었다. …(중략)… 그때 신라의 使者 毛麻利叱智 등이 물레 배와 뱃사공을 나누어 微叱旱岐를 태워서 신라로 도망가게 하였다. …(중략)… ①襲津彦은 …(중략)… 곧 속은 것을 알고, 신라의 사자 3인을 잡아 감옥 안에 가두고, 불로 태워 죽였다. 그리고 新羅로 나아갔다. 踏鞴津에 주둔하고 草羅城을 함락하고 돌아왔다. (『일본서기』 권 9, 신공기 5년 3월조)⁷⁶⁾

위의 사료는 『일본서기』 신공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제상이 왜에 불모로 갔던 미사흔을 구출해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문헌의 기년에 맞추어 당시 신라왕은 눌지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눌지왕의 재위 기간은 417년~458년으로 대체로 5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데, 이때의 신라는 이전의 실성왕 대와 마찬가지로 가락국을 포함한 가야를 압박하고 있었다.⁷⁷⁾

위의 사료 밑줄 친 ①에서 미사흔을 추격하는 襲津彦 지휘하의 왜군이 주둔한 踏鞴津이란 곳이 주목되는데, 그 원문을 제시하면 “襲津彦 …(中略)… 乃詣新羅 次于踏鞴津 拔草羅城還之”와 같다. 일단 왜군이 함

76) 『日本書紀』 권9, 神功紀 5년 3월조, “新羅王遣汗禮斯伐毛麻利叱智富羅母智等朝貢 仍有返先質微叱許智伐旱之情 是以 詔許智伐旱 而給之曰 使者汗禮斯伐毛麻利叱智等 告臣曰 我王以坐臣久不還 而悉沒妻子爲祭 冀還本土 知虛實而請焉 皇太后則聽之 因以 副葛城襲津彦而遣之 共到對馬 宿于鉏海水門 時新羅使者毛麻利叱智等 竊分船及水手 載微叱旱岐 令逃於新羅 乃造菟靈 置微叱許智之床 詳爲病者 告襲津彦曰 微叱許智忽病之將死 襲津彦使人令看病者 卽知欺 而捉新羅使者三人 納檻中以火焚而殺 乃詣新羅 次于踏鞴津 拔草羅城還之.”

77) 눌지왕 대 신라의 가야에 대한 압박은 유우창, 앞의 논문, 2009, 150쪽 참조.

락했다는 ‘초라성’은 지금의 양산으로 비정되는데,⁷⁸⁾ 눌지왕 대 신라의 영역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박제상이 ‘삼량주간’ 혹은 ‘삼라군태수’로 나오기 때문이다.⁷⁹⁾ 문제는 ‘도비진’의 소속여부일 것이다. 제시한 원문을 번역하면 문맥상 도비진은 신라의 영역으로도 볼 수 있지만, 신라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다. 도비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踏鞞’는 음가가 ‘タタラ’로서 아래의 사료 B-②의 ‘多多羅’와 동일 지역으로 지금 부산의 다대포로 비정된다.⁸⁰⁾ 즉 왜군이 지금의 다대포로 들어 온 셈이 된다. 기록의 사실성 여부는 일단 논외로 하고, 이처럼 왜군이 도비진(다다라)으로 들어와 주둔했다고 표현된 까닭은 미사흔의 탈출 루트와 관련된다 할 것인데, 아마도 미사흔이 다대포로 상륙하여 박제상의 근거지인 양산을 거쳐 왕도인 경주로 들어갔기 때문일 것이다.

5세기 전반에는 복천동고분군의 경우 여전히 왕릉급 고분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이때 독로국은 건재하였으며, 신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고 한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당시 독로국의 경역 안에는 지금의 다대포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인데,⁸¹⁾ 신라의 왕자인 미사흔이 독로국의 영역으로 상륙하였던⁸²⁾ 까닭은 당시

78) 坂本太郎 외, 『日本書紀』上, 岩波書店, 1967, 617쪽의 補注 9-26 참조.

79) 『三國史記』 권45, 列傳 5, 朴堤上傳 및 『三國遺事』 권1, 紀異 1, 奈勿王金堤上條.

80) 坂本太郎 외, 앞의 책, 617쪽의 補注 9-27. 山尾幸久, 『朝鮮三國의 軍區組織』 『古代朝鮮と日本』, 龍溪書舍, 1974, 148쪽. 鄭澄源, 앞의 논문, 1978, 16쪽. 노중국, 『辰·弁韓의 政治·社會구조와 그 운영』 『진·변한사연구』, 경상북도 계명대학교한국학연구원, 2002, 232~233쪽. 김현구 외,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 (I), 일지사, 2002, 77쪽. 백승충, 앞의 논문, 2002, 20쪽.

81) 『삼국사기』 지리지 동래군조에 그 영현으로 동평현이 보이는데, 그 이전에는 대증현이라 하였다. 지금의 다대포인 다다라는 대증현의 관할지역으로 보인다(釜山市史編纂委員會, 『釜山略史』, 嶺南印刷所, 1965, 24쪽).

82) 『三國志』 권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傳, “其瀆盧國與倭接界”의 기록을 보더라도 미사흔이 탈출하여 한반도에 상륙한 지역이 다대포일 것임은 자명하다.

독로국과 신라의 우호관계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위의 사료를 ‘고구려남정’ 이후 독로국과 신라의 우호관계를 방증하는 기록으로 여길 수 있다고 보며, 밑줄 친 ㉠부분에 독로국과 신라를 보입하여 “曩津彦은 …(중략)… 신라로 나아갔다. (독로국의) 蹈鞬津에 주둔하고 (신라의) 草羅城을 함락하고 돌아왔다”로 다시 해석하고 싶다.

B-① 異斯夫 … 智度路王 때에 沿邊官이 되어 居道의 술책을 이어 받아 馬戲로써 加那或은 加羅라고도 한다를 속여 이를 쳐서 빼앗았다. (『삼국사기』 권44, 열전 4, 이사부)⁸³⁾

B-② 이달, …(중략)… 新羅는 다시 그 上臣인 伊叱夫禮智干岐를 보내 군사 3천을 이끌고 와서 칙언 듣기를 청했다. …(중략)… 伊叱夫禮智干岐는 多多羅原에 머물면서 삼가 돌아가지 않고 석 달을 기다렸다. …(중략)… 上臣이 4개의 村을 抄掠하고 金官·背伐·安多·委陀의 네 村이다. 一本에 이르기를, 多多羅·須那羅·和多·費智가 네 村이 된다고 한다, 人物을 다 데리고 그 본국으로 들어갔다. (『일본서기』 권17, 계체기 23년 4월조)⁸⁴⁾

위의 사료들은 지증왕 때부터 법흥왕을 거쳐 진흥왕 때까지 활약한 장수인 이사부의 업적을 기록한 것들이다. 특히 B-①의 경우, 이를 근거

83) 『三國史記』 권44, 列傳 4, 異斯夫傳, “異斯夫[或云 苾宗]姓金氏 奈勿王四世孫 智度路王時 爲沿邊官 曩居道權謀 以馬戲 誤加那或云加羅國取之.”

84) 『日本書紀』 권17, 繼體紀 23년 4월조, “是月 …(中略)… 由是 新羅改遣其上臣伊叱夫禮智干岐[新羅 以大臣爲上臣 一本云 伊叱夫禮知奈末] 率衆三千 來請聽勅 毛野臣 遙見兵仗圍繞 衆數千人 自熊川 入任那已利城 伊叱夫禮智干岐 次于多多羅原 不敬歸待三月 頻請聞勅 終不肯宣 伊叱夫禮智所將士卒等 於聚落乞食 相過毛野臣 僂人河內馬飼首御狩 御狩入隱他門 待乞者過 捲手逢擊 乞者見云 謹待三月 竹聞勅旨 尙不肯宣 惱聽勅使 乃知欺誑 誅戮上臣矣 乃以所見 具述上臣 上臣抄掠四村[金官 背伐 安多 委陀 是爲四村 一本云 多多羅 須那羅 和多 費智爲四村也] 盡將人物入其本國.”

로 A-① 사료의 역사성을 부정하기도 하고,⁸⁵⁾ 가락국의 멸망을 전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⁸⁶⁾ 본고에서는 ‘가야국’을 ‘가라국’이라고도 한다는 세주로 보아 이사부가 공격한 곳은 지금의 고령을 중심으로 한 가라국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증왕의 치세(500~514년)가 가라국의 국호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남제서』 가라국전의 건원원년(479)로부터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이다.⁸⁷⁾ 따라서 독로국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료로 판단하고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B-②의 경우, 본문에서 이사부의 3천 군사가 多多羅原 즉, 지금의 부산 다대포의 별판에서 진을 펼치고 있다가 4개의 마을을 초략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세주에서 금관 등 4개의 村을 구체적으로 거명하고 있음과 아울러 또 다른 一本을 인용하여 4개의 촌을 나열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다라’가 포함되어 있어 매우 주목된다.

다다라는 이미 앞의 사료 A-②의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로국의 영역이었다. 즉 ‘고구려남정’ 이후인 5세기 전반에는 독로국의 영역으로 존재하고 있던 다다라가 529년에 신라의 장군 이사부에 의해 점

85) 李宇泰, 앞의 논문, 1997, 43쪽.

86) 백승충, 앞의 논문, 2002, 29쪽. 선석열, 앞의 논문, 2016, 11쪽.

87) 당시 이사부의 직함이 沿邊官이라는 점, 거도와 같이 馬戲라는 계책을 사용한 점 등을 들어 가라국이 아닌 다른 가야지역에 대한 침공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사부의 직함 연변관이란 강을 면하고 있는 신라 변경지역의 관리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대상은 낙동강의 대안에 있는 가야의 모든 지역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가라국만이 낙동강을 끼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가라국 또한 낙동강 중류역에 위치한 나라였다. 한편 이사부는 우산국 정벌에서 ‘木偶師’를 이용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복전쟁에서 기발한 계책을 많이 쓴 장수였다. 따라서 가라국에 대한 공격에서도 ‘마희’ 계책을 충분히 구사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때 가라국을 습격하여 ‘取’했다는 것은 ‘멸망시켰다’는 의미로 읽히므로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이사부의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과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가라국의 영역 중 신라 쪽으로 향한 일부 지역이 지증왕 때 잠식된 정도로 이해하고자 한다.

령되고 만 것이다. B-②의 내용으로 보아 이사부는 ‘다다라의 별판’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먼저 ‘다다라촌’ 즉 ‘다다라성’⁸⁸⁾을 함락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다다라성을 확보함으로써, 다다라 지역 전체를 장악하게 된 이사부는 이를 교두보로 가락국을 공격하기 위하여 낙동강을 건넜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락국이나 독로국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곧바로 멸망, 즉 신라에 편입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가락국의 경우, 532년이 되어서야 국왕이 처자를 이끌고 신라에 투항하고 있기 때문이다.⁸⁹⁾ 독로국의 경우에도 ‘다다라’라는 일개 지역을 상실했을지언정 가락국과 같이 짧은 기간이나마 독립적으로 존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료 A-①에서 본 바와 같이 독로국이 신라에게 병탄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아마도 가락국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과정을 거쳐 신라로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⁹⁰⁾

88) 『三國志』 권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韓傳, “弁辰 … 亦有城郭.”에서 볼 수 있듯이 삼한시대부터 가야에는 성곽이 있었다. 6세기의 다다라촌도 성곽으로 둘러쌓인 곳이었을 것이다.

89)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4, 法興王 19년조, “金官國主金仇亥 與妃及三子 長曰奴宗 仲曰武德 季曰武力 以國帑寶物來降 王禮待之 授位上等 以本國爲食邑 子武力仕至角干.”

90) 『일본서기』 흙명기는 백제 성왕의 말을 빌어 신라가 이른바 ‘남부가야3국’을 병탄하는 과정 또는 그 까닭을 비교적 자세히 전하고 있는데,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日本書紀』 권19, 欽明紀 5년 3월조, “喙國之函跛旱岐 貳心加羅國 而內應新羅 加羅自外合戰 由是滅焉 若使函跛旱岐 不爲內應 喙國雖少 未必亡也.”는 탁(기탄)국, 欽明紀 2년 4월조, “其卓淳 上下携貳 主欲自附 內應新羅 由是見亡.”은 탁순국의 멸망을 전하는데, 가락국과 마찬가지로 모두 투항하고 있다. 특히 탁국과 탁순은 국왕이 신라와 내응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독로국도 국왕이 신라와 내응한 일이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IV. 연산동고분군과 독로국

본고는 앞 장에서 독로국의 신라 편입시기를 529년 무렵, 즉 『일본서기』의 ‘4촌초락’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설은 문헌학계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주장된 것이었다. 본고에서 제시한 시기와 약간의 출입은 있지만, 신라의 독로국 복속 시기를 5세기에서 6세기에 이르는 사이로 보고, 독로국을 병합함으로써 신라는 비로소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가락국과 대치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견해,⁹¹⁾ 그리고 앞의 사료 B-②의 분석을 통해서 529년 무렵 까지도 ‘신라는 동래지역을 완전 장악하지 못한 상태’로 본 견해⁹²⁾가 대표적인 것이다.

C-① 大飢山城을 쌓았다.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1, 지마이사금 10년 2월조)⁹³⁾

C-② 왕이 몸소 나라 안의 州郡縣을 정하고 悉直州를 설치했으며 異斯夫를 軍主로 삼았으니, 군주의 명칭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4, 지증마립간 6년 2월조)⁹⁴⁾

C-③ 東萊郡은 본래 居漆山郡으로, 景德王이 改名하여 지금도 그대로 일컫는다. 領縣이 둘이다. 東平縣은 본래 大飢縣인데, 景德王이 改名하여 지금도 그대로 일컫는다. 機張縣은 본시 甲火良谷縣으로, 景德王이 改名하여 지금도 그대로 일컫는다. (『삼국사기』 권34, 잡지

91) 釜山市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21쪽.

92) 千寬宇, 앞의 책, 1991, 66쪽. 천관우는 “사실, 金海에서 보아 洛東江 바로 건너인 東萊 지역을 일찍부터 慶州 세력에게 완전히 빼앗기고 있었다면, 金海의 金官國이 그 처럼 오래 存續될 수가 없었을 것이기도 하다.”고 부언하였는데, 본고에서도 공감하는 바이다.

93) 『三國史記』 권1, 新羅本紀 1, 祇摩尼師今 10년 2월조, “築大飢山城”

94)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4, 智證麻立干 6년 2월조, “王親定國內州郡縣 置悉直州 以異斯夫爲軍主 軍主之名始於此”

3, 지리 1, 동래군)⁹⁵⁾

C-①의 대증산성은 C-③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래군의 영현인 동평현의 옛 명칭 대증현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즉 대증현에 있는 산에 축조되었기 때문에 그 성의 명칭이 ‘대증산성’이 되었을 것이다. 대증현은 지금의 당감동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므로⁹⁶⁾ 대증산성 또한 당감동과 부암동 일대에 위치한 산성이었을 것⁹⁷⁾으로 본다.⁹⁸⁾ 신라가 부산지역에 대증산성을 쌓았다는 것은 이미 독로국을 아울렀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가능한 일이다. 사료에서 신라가 기존에 있는 성을 공취한 것이 아니라 새로 축조한 듯한 어감이 강하므로 본고에서는 조심스럽게 신라의 대증산성 축조를 6세기 2/4분기 기간 중에 일어난 일로 보고자 한다.⁹⁹⁾

C-②는 신라의 지방통치와 관련되는 기록으로 특히 ‘직접적인’ 지방통치가 행해지기 시작되었음을 전하는데, 시기는 지증왕 6년인 505년,

95) 『三國史記』 권34, 雜志 3, 地理 1, 東萊郡條, “東萊郡 本居漆山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嶺縣 二 東平縣 本大甌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機張縣 本甲火良谷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96) 釜山市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24쪽. 丁仲煥, 앞의 논문, 1970, 64쪽; 앞의 책, 2000, 315쪽. 鄭澄源, 앞의 논문, 1978, 18쪽. 이원균, 『부산의 역사』, 늘함께, 2000, 45쪽. 주보돈, 『신라 지방통치체제의 정비과정과 촌락』, 신서원, 1998, 501쪽. 백승충, 앞의 논문, 2002, 32쪽.

97) 전덕재, 『삼국시대 황산진과 가야진에 대한 고찰』 『韓國古代史研究』47, 2007, 58쪽.

98) 그러나 C-①의 대증산성 축조 기사에 대하여 논란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같은 시기 신라와 가야의 일련의 전쟁기사 속에 나오는 加召 馬頭城(=정도)의 축조와 관련이 있다면, 위치상으로는 대증현보다는 현재의 양산 물금 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백승충, 앞의 논문, 2002, 32쪽)도 있기 때문이다.

99) 만약 이와 같은 추정에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대증산성 축조는 이사부에 의해 시행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시기를 명확히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사부는 다다라성을 함락한 다음 ‘대증현 지역’을 아우르고 산성을 쌓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三國史記』 권4, 新羅本紀 4, 眞興王 11년, “春正月 百濟拔高句麗道蔭城 三月 高句麗陷百濟金峴城 王乘兩國兵疲, 命伊飡異斯夫出兵擊之, 取二城增築, 留甲士一千戍之.”의 기록에서와 같이 양 성을 점령하고 성을 증축한 장수가 이사부인 점은 대증산성 축조와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6세기 1/4분기이다. 이와 같은 505년의 주-군-현 확정을 금석문상의 주-군-행정촌으로 간주하고 각각의 지방관을 군주-당주-도사로 비정한 연구에 의하면, 505년부터 법흥왕 대까지 주에는 군주가 있지만, 군에는 당주가 없고 도사가 파견되었으며, 6세기 2/4분기에 속하는 540년에 즉위한 진흥왕 대에 이르러서야 주-군-행정촌 체제를 갖추어 통치를 행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561년경, 즉 6세기 3/4분기에 건립된 진흥왕척경비인 창녕비에서 비로소 중앙관을 비롯하여 지방관과 재지세력의 체계적인 구분이 명확한 지방통치체제를 갖추었을 것이라고 한다.¹⁰⁰⁾

사실이 이와 같다면 6세기 2/4분기에 신라에 멸망당한 독로국에 대하여 신라의 직접적 통치는 6세기 2/4분기나 6세기 3/4분기가 되어야 가해졌고, 옛 독로국 지역은 신라인에 의해서 거칠산군이라 불리기 시작했을 것이다.¹⁰¹⁾ 그런 과정 속에서 대증현과 갑화랑곡현이 편제되었고, 사료 C-③에서 보는 바와 같이 8세기 중반에 거칠산군이 동래군으로, 대증현이 동평현으로, 갑화랑곡현이 기장현으로 개명되었던 것이다.

이상이 ‘부산지역 가야였던 독로국’의 흥망을 문헌적 측면에서 다루어 본 것이다. 독로국은 삼한시대 독로국으로 출발하여, ‘고구려남정’ 이후에도 신라와 우호적인 분위기를 상당기간 유지하였다. 그 후 6세기 2/4분기인 529년 무렵, 신라로부터 궤멸적 타격을 받고 약간의 명맥을

100) 선석열, 앞의 논문, 2016, 19~21쪽 참조.

101) 신라의 옛 독로국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통치는 정용숙, 『삼국 통일신라시대 부산지역의 행정조직과 통치구조』 『港都釜山』 19, 2003, 12쪽에서는 6세기 중엽에서야 신라의 거칠산군으로 편제되어 지방관의 직접적 통제를 받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였고, 김기섭, 『삼국 통일신라시대 부산지역의 사회』 『港都釜山』 19, 2003, 60쪽에서는 6세기 중엽까지도 「남산신성비」에서처럼 촌락의 유력층을 군 단위로 구분하는 것은 전 지역에 걸쳐 일반화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 거칠산군의 설치에 보다 뒤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도 한다.

유지하다가 신라로 완전히 병탄되었다. 따라서 독로국의 존속기간은 1세기~6세기 전반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한편 부산의 고분유적으로 복천동고분군과 연산동고분군이 존재한다. 그동안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복천동 10·11호분¹⁰²⁾을 끝으로 수장묘의 영조가 복천동고분군에서 연산동고분군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¹⁰³⁾ 결국 두 고분군의 축조기간이 모두 독로국의 존속기간 안으로 편년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 두 고분군은 시간적으로 보거나 공간적으로 보더라도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독로국의 유적임이 명확하다. 본고의 목적이 독로국의 신라 편입시기를 추적해보는 것이므로 복천동고분군은 일단 논외로 하고, 아래에서는 연산동고분군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연산동고분군은 잔피라고도 불리는 배산의 북쪽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60m~40m 전후의 능선 정상부를 따라 남북방향으로 18기의 고총고분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이 고분군은 온천천을 사이에 두고 복천동고분군과 마주보고 있으며, 고분군의 조영 시기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¹⁰⁴⁾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5세기 후반~6세기 전반, 즉 연산동고분군이 축조되는 시기의 부산지역 정치집단은 신라에 복속된 정치체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하였다고 하는데, 그 까닭은 대개 토기양식에 의거한 입장이라고 한다.¹⁰⁵⁾

연산동고분군은 이미 일제강점기부터 眉庇付冑, 三角板鋌留短甲, 小札草褶, 鐵製冠帽 등의 갑주류와 圓頭大刀가 출토됨으로써 주목을 받았

102) 5세기 중엽이라는 설(申敬澈, 앞의 논문, 1995a, 48쪽)과 5세기 2/4분기의 전반이라는 설(김두철, 앞의 논문, 2013, 172쪽)이 있다.

103) 申敬澈, 위의 논문, 48쪽; 앞의 논문, 1995b, 241쪽.

104) 福泉博物館, 앞의 책, 2003, 145쪽. 홍보식, 『蓮山洞古墳群의 調査成果와 高塚古墳 築造 技術』, 『연산동고분군의 의의와 평가』, 부산대학교박물관, 2013, 5쪽. 김두철, 앞의 논문, 2013, 168쪽.

105) 김두철, 위의 논문, 170쪽.

다고 하는데, 성격 파악을 위한 발굴조사가 1987년 12월부터 1988년 2월까지 M4호분과 M8호분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봉분의 평면형태가 타원형이고, 매장주체시설이 장방형의 수혈식석곽임이 확인되었다고 한다.¹⁰⁶⁾ 매장주체시설의 경우, 신라의 무덤이 적석목곽묘로서 지상화를 지향한데 반하여 연산동고분군은 지하에 조영된 수혈식석곽묘로서 토착, 즉 북천동고분군의 전통을 계승한 측면이 강하다고 하는데,¹⁰⁷⁾ 북천동고분군은 독로국 지배층이 남긴 유적이라고 이미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근년에 이르러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주체가 되어 ‘연산동고분군 유적정비 및 공원화사업 종합계획’에 따라 부산박물관에 의해 3차례의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수혈식석곽묘가 연산동고분군에 존재한다는 놀라운 사실이 알려졌다.¹⁰⁸⁾

그 고분은 바로 구릉 북동쪽에 위치한 연산동M3호분이었다. 제2차 발굴조사(2011년 7월~2012년 6월) 때 정밀히 조사되었다고 하는데, 매장주체부의 길이가 19m, 너비가 6m로 영남지역의 삼국시대 고분중 가장 규모가 큰 수혈식석곽이라고 한다. 주곽과 부곽을 별도의 묘광에 수혈식석곽을 설치하였다고 하는데, 석곽에서 金銅冠, 札甲(2별)·板甲·彎曲縱長板冑(2별)·衝角付冑·팔가리개 등의 武具類, 馬冑·馬甲·杏葉·재갈·보요부장식 등의 마구류, 高杯·長頸壺·鉢形器臺·有蓋軟質甕 등의 토기류가 출토되었다고 한다. 묘광과 석곽 벽 사이의 충전공간이 넓으며 석곽의 최상단석이 지하에 위치하는 점은 앞 시기의 북천동고분군 수혈식석곽의 전통을 계승하였고, 이 시기 창녕·함안·고령·대구 등지의 수혈식석곽이 반지상식인 점과 뚜렷한 차이를 가지는 부산지역만의 특징

106) 부산박물관, 『蓮山洞 M3號墳』, 부산박물관 학술연구총서 제41집, 2014, 270쪽.

107) 김두철, 앞의 논문, 2013, 170쪽.

108) 지난 2013년 12월 18일 연제구청 구민홀에서 개최된 ‘연산동고분군의 의의와 평가’라는 제목의 학술회의에서 연설한 신경철의 언급(부산대학교박물관, 『연산동고분군의 의의와 평가』, 2013, i 쪽의 『개회사』)에서이다.

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¹⁰⁹⁾ 그리고 봉토를 쌓는 방법¹¹⁰⁾도 독창적이어서 이 지역 정치체, 즉 독로국이 독자세력이었음을 말해준다고 한다.¹¹¹⁾

이와 같은 연산동M3호분은 5세기 4/4분기 전반으로 편년된다고 한다.¹¹²⁾ 5세기 4/4분기의 전반이라면, 475년 이후부터 대체로 480년대까지 해당할 것이다. 여기서 잠시 이 기간 동안의 가야를 둘러싼 정세를 점검해보고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 이 무렵은 한반도에서 제법 굵직한 사건이 거의 연속적으로 발생한 시기였는데,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475년 고구려의 강력한 남하정책에 의해 백제 수도 한성이 함락되고, 개로왕은 장수왕에게 참수되었으며,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었다.¹¹³⁾ 천도 후에도 백제는 신하에게 국왕이 시해되고, 어린 왕이 등극하는¹¹⁴⁾ 등 내홍과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 틈을 타 고령의 가라국은 백제지역으로 영역확장을 시도하여 호남동부지역을 자신의 영향권 아래에 두는¹¹⁵⁾ 등 영역적으로는 최대판도를 소유하게 되었다. 479년이 되자 고령의 가라국은 이와 같은 성공적인 대외정책에 자신감을 가지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중국 남조 국가인 남제에 견사하여 보국장군분국왕이라는 작호를 받고,¹¹⁶⁾ 가야 역사상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었다.

109) 홍보식, 앞의 논문, 2013, 5~6쪽.

110) 봉토 쌓는 방법에 대해서는 홍보식, 위의 논문, 7~26쪽과 부산박물관, 앞의 책, 2014, 270~286쪽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111) 김두철, 앞의 논문, 2013, 170쪽.

112) 김두철, 『고총고분시대의 연산동고분군』, 『연산동 고총고분과 그 피장자들』, 부산대학교박물관, 2016, 116쪽의 표2 연산동 고총고분의 편년(안).

113) 『三國史記』 권18, 高句麗本紀 6, 長壽王 63년 9월조, 권25, 百濟本紀 3, 蓋鹵王 21년 9월조 및 권26, 百濟本紀 4, 文周王 즉위년 10월조.

114) 『三國史記』 권26, 百濟本紀 4, 文周王 4년 9월조 및 三斤王 즉위년조.

115) 유우창, 『대외관계로 본 가라국의 발전』, 『지역과 역사』 16, 2005, 192~193쪽.

116) 『南齊書』 권58, 東南夷列傳 39, 加羅國傳, “加羅國 三韓種也 建元元年 國王荷知使來獻 詔曰 量廣始登 遠夷洽化 加羅王 荷知款關海外 奉贊東遐 可授輔國將軍 本國王.”

481년 고구려는 또다시 남하정책을 펼쳤는데, 그 대상은 백제가 아니라 신라였다.¹¹⁷⁾ 고구려는 호명 등 일곱 개의 성을 함락시키고 남진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 공격 루트를 보면 이때의 고구려는 475년 때의 백제 공격처럼 이참에 신라의 왕도를 함락하고자 했던 것처럼 보인다. 한편 신라는 신속하게 백제와 가라국에 구원을 요청하였고,¹¹⁸⁾ 이에 호응한 양국은 신라를 도와 고구려군을 격퇴하여 신라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게 하였다. 이후 3년 뒤 고구려는 다시 신라의 북변을 침공하였는데,¹¹⁹⁾ 가라국은 참전하지 않고,¹²⁰⁾ 백제만 원군을 보내 신라를 도와 고구려군을 격퇴하였다.

바로 이와 같은 급박한 국제정세 하에서 독로국은 연산동M3호분을 축조하였던 것이다. 연산동M3호분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 길이가 약 19m, 너비는 6m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주·부곽 수혈식석곽묘이다.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해야 축조가 가능한 고분이라 할 수 있겠는데,¹²¹⁾ 역설적으로 독로국은 신라와 달리 매우

117)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 3, 昭知麻立干 3년 3월조, “高句麗與鞞鞫入北邊 取狐鳴等七城 又進軍於彌秩夫 我軍與百濟加耶附援兵分道禦之 賊敗退 追擊破之泥河西 斬首千餘級”

118) 가라국이 남제에 사신을 파견한 해가 479년이므로, 그로부터 2년 뒤인 이 당시 가라국의 왕은 하지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盧重國, 『大伽耶의 政治·社會構造』 『加耶史研究』, 경상북도, 1995, 178~179쪽의 주 82 및 양기석, 『5世紀後半 韓半島 情勢와 大伽耶』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고려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7, 46쪽).

119)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 3, 昭知麻立干 6년 7월조, “高句麗侵北邊 我軍與百濟合擊於母山城下 大破之.”

120) 지산동고분군의 위용과 중국 남조 남제에 사신을 파견하여 하지왕이 관작을 수여받았던 당시 가라국의 위상을 감안한다면 신라는 이때도 가라국에 원군 파견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만약 사실이 그러했다면 삼국 간의 분쟁에서 가라국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대응하는 독자적 군사외교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金泰植, 『加耶聯盟史』, 一潮閣, 1993, 113쪽. 유우창, 『5세기대 '나제동맹'의 성립과 가라국』 『釜大史學』 30, 2006, 209쪽.

121) 홍보식, 앞의 논문, 2013, 7쪽.

태평한 시기를 누린 듯하다.

그 까닭은 독로국이 위의 사건들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는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일단 전쟁이 고구려의 남침으로 시작되었고, 그러므로 전장 자체가 한반도 동남단에 입지한 독로국으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독로국과 가라국의 관계 파악이 급선무이나 사료의 한계로 잘 알 수 없다. 다만 이 사건들로부터 간접적 영향은 받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예컨대 낙동강을 거론할 수 있다.

당시 가라국과 신라의 관계는 상호 군사원조를 할 정도로 신뢰 속에 있었는데, 낙동강 중류의 가라국과 하류의 독로국은 낙동강을 수로로 삼아 상호 왕래하며 같은 가야의 일원으로서의 동질감을 확인하고, 성원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병참물자 정도를 보내지 않았을까? 억측하는 바이다.¹²²⁾

한편 연산동고분군의 고총고분은 M10→M3→M8·M7호 무덤의 순으로 축조¹²³⁾된다고 하며, 보고서가 공간되지 않은 M4호분은 M8호분보다 다소 연대가 내려온다고 한다.¹²⁴⁾ M8호분이 5세기 4/4분기 후반으로 편년된다고 하니,¹²⁵⁾ M4호분은 6세기 전반 정도로 편년될 수 있는 무덤일 것이다. 추세로 보아 이 무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기로 편년되는 무덤을 끝으로 연산동고분군에서 고총고분은 축조가 중단되었을 것이다. 고고학계에서는 바로 그 시점을 독로국이 신라로 편입된 시기로 보고 있다.¹²⁶⁾ 즉 고총고분을 조영한 시기는 여전히 독로

122) 지금까지 조사된 연산동고분군의 대형분들은 철저히 도굴되었으며, 수습된 파편들을 보면 갑옷과 투구, 馬具 심지어는 冠의 조각까지 당시로서는 최상층 신분의 피장자만이 소유했을 유물이 대부분의 무덤에 부장되어 있다고 하는데(김두철, 앞의 논문, 2013, 168쪽), 마구와 갑주는 이 유적 지배계층의 무장적 성격을 잘 대변해 준다(김두철, 앞의 논문, 2016, 110쪽)고 한다. 어쩌면 이와 같은 군수품들이 가라국에 지급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123) 김두철, 위의 논문, 2016, 122쪽.

124) 신경철, 앞의 논문, 1995b, 243쪽.

125) 김두철, 앞의 논문, 2016, 116쪽.

국, 즉 가야의 일국으로서 의연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뜻이며, 마침내 연산동고분군에서 고총고분의 축조가 중단되면서 부산의 고대세력, 즉 독로국은 사라지고 완전히 신라화 되어 간 것으로 보고 있다.¹²⁷⁾ 이와 같은 결론은 독로국의 흥망을 문헌적으로 살펴본 본고와도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연산동고분군은 현대 도심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봉분이 남아 있는 부산지역 유일의 삼국시대 고분군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좋으며, 최근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¹²⁸⁾ 연산동고분군은 종래 출토된 토기가 대부분 신라양식이라 하여 신라고분으로도 인식되어 왔으나, 그 출토토기의 계통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하므로,¹²⁹⁾ 이제는 달리 생각할 여지가 생겼다.

부산지역의 가야는 독로국이였다. 독로국은 주변 국가들과 적절한 대외관계를 구사하면서 면면히 이어오다 6세기 전반 신라에게 병탄되었다. 그들이 남긴 유적 중 하나가 연산동고분군인 것이다. 연산동고분군 축조세력이 독로국의 지배층이었고, 독로국은 엄연히 가야를 이루는 구성원이었다. 부연하자면, 연산동 세력을 신라의 정치적 조정 하에 있거나 그에 복속된 세력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들은 가야의 독자세력이었던 것이다.¹³⁰⁾ 따라서 이제 연산동고분군은 ‘가야사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부산지역의 가야, 즉 독로국의 실체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126) 申敬澈, 앞의 논문, 1995a, 48쪽 및 51쪽.

127) 김두철, 앞의 논문, 2016, 134쪽.

128) 본고를 투고하고 심사결과를 기다리던 중 미디어를 통해 연산동고분군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적 제539호’로 지정받았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인터넷 판 <부산일보> <http://news20.busan.com> 2017년 6월 28일자.

129) 김두철, 앞의 논문, 2013, 171쪽.

130) 백승옥, 『가야제국의 존재형태와 ‘지역국가론’』 『가야제국의 존재형태와 연산동고분군』(고산문화재단 제2회 학술세미나), 2013, 24쪽.

V. 맺음말

본고에서 필자는 연산동고분군이 신라가 아니라 독로국, 즉 가야의 지배층이 남긴 유적일 것으로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독로국은 529년 이사부의 공격을 받아 결정적 타격을 입기 전까지 의연히 독자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고고학적 연구에서도 비슷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데, 독로국의 유적인 연산동고분군의 경우, 6세기 전반에 그 축조가 중단되고, 그 시점에서야 비로소 신라에 편입되었을 것으로 결론짓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지금까지 다루었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함으로써 맺음말에 대신할까 한다.

제1장에서는 ‘고구려남정’ 전후의 시기를 통시적으로 개괄해보고, 특히 5세기 대 독로국을 포함한 가야의 동향을 훑어보았다. ‘고구려남정’ 이전 대국이었던 가락국보다 소국이었던 독로국은 가락국의 영도에 부수될 수밖에 없던 존재였다. 그러나 ‘고구려남정’ 이후 고구려의 군사적 도움에 힘입은 신라가 가락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등 가락국과 신라의 관계는 악화되었지만, 독로국은 신라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로 든 것이 복천동고분군에서의 왕릉급 고분의 조영이었다. 이 점이 가락국과 독로국의 차이였다.

제2장에서는 신라의 독로국 병탄 과정을 몇 개의 사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5세기 초 신라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던 가락국이 쇠퇴하자 독로국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가락국과 정치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신라와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신라와의 관계에서 눌지왕의 아우 미사흔의 탈출 경로 중 하나였던 도비진(다다라)을 주목하였다. 그 결과 5세기 전반의 도비진, 즉 다다라는 독로국의 영역이었을 가능성을 타진해보았는데, 신라의 왕자인 미사흔이 독로국의 영역인 다다라

로 상륙하였던 까닭은 당시 독로국과 신라가 우호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보았다. 그 후 529년 무렵에 다다라가 신라의 이사부에 의해 점령됨으로써, 독로국은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후 독로국은 짧은 기간의 명맥을 유지하다가 가락국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과정을 거쳐 신라로 편입되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제3장에서는 연산동고분군이 ‘가야사 속’에서 존재하는 가치를 나름대로 음미해보았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수혈식석곽묘인 연산동 M3호분의 축조 연대가 5세기 4/4분기 전반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그 시기에 진행된 한반도 정세를 독로국을 포함한 가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산동 M3호분은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해야 축조가 가능한 고분인데, 이와 같은 거대 고분이 축조될 수 있었던 까닭은 독로국이 고구려·백제·신라 그리고 가락국 간에 벌어진 사건들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연산동고분군은 향후 ‘가야사 속’에서 보다 세밀히 파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

1. 사료

『三國志』 『晉書』 『魏書』 『資治通鑑』 『日本書紀』 『三國史記』 『三國遺事』

2. 저서 및 논문

孔錫龜, 『高句麗 領域擴張史 研究』, 書景文化社, 1998.

김기섭, 『삼국·통일신라시대 부산지역의 사회』, 『港都釜山』 19, 2003.

김두철, 『연산동고분군과 복천동고분군』, 『연산동고분군의 의의와 평가』, 부산대학교 박물관, 2013.

_____, 『고총고분시대의 연산동고분군』, 『연산동 고총고분과 그 피장자들』, 부산대

학교박물관, 2016.

金泰植, 『加耶連盟史』, 一潮閣, 1993.

_____, 『廣開土王陵碑文의 任那加羅와 ‘安羅人戍兵’』 『韓國古代史論叢』 6, 1994.

김현구 외,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 (I), 일지사, 2002.

남재우, 『가야, 그리고 사람들』, 선인, 2011.

盧重國, 『高句麗·百濟·新羅 사이의 力關係變化에 대한 一考察』 『東方學志』 28, 1981.

_____, 『大伽耶의 政治·社會構造』 『加耶史研究-대가야의 政治와 文化』, 경상북도, 1995.

_____, 『辰·弃韓의 政治·社會구조와 그 運영』 『진·변한사연구』, 경상북도·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2.

白承玉, 『加耶 各國史 研究』, 혜안, 2003.

_____, 『변·진한 및 가야 신라의 경계』 『韓國古代史研究』 58, 2010.

_____, 『가야제국의 존재형태와 ‘지역국가론’ -연산동고분군의 성격조명을 위한 전체적 논의-』 『가야제국의 존재형태와 연산동고분군』(고산문화재단 제2회 학술세미나), 2013.

白承忠, 『加耶의 地域聯盟史 研究』,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5.

_____, 『삼한시대 부산지역의 정치집단과 그 성격 -弃瀆盧國을 중심으로-』 『港都釜山』 18, 2002.

福泉博物館, 『釜山蓮山洞遺蹟』, 福泉博物館 學術研究叢書 第15輯, 2003.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부산의 역사와 복천동고분군』, 1996.

부산박물관, 『蓮山洞 M3號墳 -연산동 고총고분군 2차 조사-』, 부산박물관 학술연구총서 제41집, 2014.

釜山市史編纂委員會, 『釜山略史』, 嶺南印刷所, 1965.

徐榮一, 『中原高句麗碑에 나타난 高句麗 城과 關防體系 -于伐城과 古牟婁성을 중심으로-』 『高句麗研究』 10, 2000.

宣石悅, 『新羅國家 成立過程研究』, 혜안, 2001.

_____, 『가야시대 부산의 대외교류』 『港都釜山』 18, 2002.

_____, 『신라의 지방통치과정과 연산동고분군』 『연산동 고총고분군 그 피장자들』, 부산대학교박물관, 2016.

申敬澈, 『金海大成洞 東萊福泉洞古墳群 點描 -金官加耶 이해의 一端-』 『釜大史學』 19, 1995a.

- _____, 「삼국·통일신라 고려시대의 동래」 『東萊區誌』, 1995b.
- 양기석, 「5世紀 後半 韓半島 情勢와 大加耶」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가야』,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7.
- 王健群著/林東錫譯, 『廣開土王碑研究』, 역민사, 1985.
- 유우창, 「대의관계로 본 가라국의 발전 -5세기대를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16, 2005.
- _____, 「5세기대 ‘나제동맹’의 성립과 가라국」 『釜大史學』 30, 2006.
- _____, 「고대 부산지역사 연구현황과 과제」 『港都釜山』 23, 2007.
- _____, 「5~6세기 ‘나제동맹’의 전개와 가야의 대응」 『역사와 경계』 72, 2009.
- _____, 「고구려 남정 이후 가락국과 신라 관계의 변화」 『韓國古代史研究』 59, 2010.
- _____, 「6세기 전반 가라와 ‘나제동맹’의 대립 -낙동강과 관련하여-」 『역사와 세계』 41, 2012.
- _____, 「‘가야고구려 동맹’의 형성과 추이」 『역사와 세계』 44, 2013.
- _____, 「4세기 후반 가야 백제-왜 동맹의 결성」 『지역과 역사』 36, 2015.
- 李基白, 「中原高句麗碑의 몇 가지 問題」 『史學志』 13, 1979.
- 李丙燾, 『韓國史』 [古代篇], 乙酉文化社, 1959.
- 이영식, 「문헌으로 본 가락국사」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혜안, 2000.
- 李宇泰, 「신라의 성립과 발전」 『한국사』 7, 국사편찬위원회, 1997.
- 이원근, 『부산의 역사-선사시대에서 개항전까지-』, 늘함께, 2000.
- 李鎔賢, 「中原高句麗碑와 新羅의 諸碑」 『高句麗研究』 10, 2000.
- 이형우, 「진·변한 諸國의 位置와 存在樣態」 『진·변한사연구』, 경상북도·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2.
- 李弘植, 『韓國古代史의 研究』, 新丘文化社, 1971.
- 李熙濬, 「김해 禮安里 유적과 新羅의 낙동강 西岸 진출」 『韓國考古學報』 39, 1998.
- 전덕재, 「삼국시대 황산진과 가야진에 대한 고찰」 『韓國古代史研究』 47, 2007.
- 정용숙, 「삼국·통일신라시대 부산지역의 행정조직과 통치구조」 『港都釜山』 19, 2003.
- 鄭雲龍, 「羅濟同盟期 新羅와 百濟 關係」 『白山學報』 46, 1996.
- 丁仲煥, 「瀆盧國考」 『白山學報』 8, 1970.
- 丁仲煥, 『加羅史研究』, 혜안, 2000.
- 鄭澄原,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부산의 역사』, 부산시, 1978.
- 조원영, 『가야, 그 끝나지 않은 신화』, 혜안, 2008.

- 朱甫喆, 『朴堤上과 5세기 초 新羅의 政治 動向』 『慶北史學』 21, 1988.
- _____, 『신라 지방통치체제의 정비과정과 촌락』, 신서원, 1998.
- _____, 『高句麗 南進의 性格과 그 影響-廣開土王 南征의 實相과 그 意義-』 『大丘史學』 82, 2006.
- 千寬宇, 『三韓攷 第3部 - 三韓의 國家形成-』 『韓國學報』 2·3합, 1976.
- _____, 『辰·弁韓 諸國의 位置 試論』 『白山學報』 20, 1976.
- _____, 『古朝鮮史 三韓史研究』, 一潮閣, 1989.
- _____, 『加耶史研究』, 一潮閣, 1991.
- 홍보식, 『蓮山洞古墳群의 調査 成果와 高塚古墳 築造 技術』 『연산동고분군의 의의와 평가』, 부산대학교박물관, 2013.
- 鈴木英夫, 『加耶·百濟と倭 -『任那日本府』論-』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 1987
- 末松保和, 『新羅史의 諸問題』, 東洋文庫, 1954.
- 武田幸男, 『序說 五~六世紀東アジア史の一視點 -高句麗『中原碑』から新羅『赤城碑』へ-』 『朝鮮三國と倭國』(日本古代史講座 第4卷), 學生社, 1980.
- 武田幸男,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廣開土王碑』研究序說-』, 岩波書店, 1989.
- 山尾幸久, 『朝鮮三國의 軍區組織 -コホリのミヤケ研究序說-』 『古代朝鮮と日本』, 龍溪書舍, 1974.
- 坂本太郎 外, 『日本書紀』 上, 岩波書店, 1967.

투고일: 2017.06.20. 심사완료일: 2017.07.04. 게재 확정일: 2017.07.20.

| Abstract |

The Yeonsan-Dong Tomb Group, in the History of Gaya

Yoo, Woo-Chang

The Yeonsan-dong tomb group has been unearthed and restored since 2000. The construction of the Yeonsan-dong tomb group complex was stopped until the first half of the 6th century. And then it was said that it was incorporated into Silla.

The most important task at present in the history academy and archeology seems to be the question of when 'Dongnoguk(瀆盧國)' was slain to Silla. Therefore, this paper also aims to trace the time to incorporate Dongnogook's Silla territory in terms of literature.

Dongnoguk began in the Three Hans period as a small country which constituted Byeonhan, or the Gaya, and was closely related to Garakguk until the fourth century. After 'Goguryeo's Southward Conquest', Dongnoguk was influenced constantly by Goguryeo through Nakdong River, and Goguryeo relics excavated from Bokcheon-dong tomb group proved this. It seems that relations with Silla were also good, because the royal tombs are still built in Bokcheon-dong tomb group until the first half of the 5th century. However, it seems to have a certain political distance from Garakguk.

Dongnoguk was not until 529 in the first half of the 6th century, when Isabu(異斯夫) was deprived of its territory, Dadara(多多羅), by Silla. However, it is likely that it was not destroyed immediately but was incorporated into Silla through a similar process at the same time as Garakguk. This combines the bins with the one Yeonsan-dong tomb group

stops making in the first half of the 6th century.

Yeonsan-dong tomb group is located in the modern city center, and is the only group of tombs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in Busan where mounds remain. The people who made Yeonsan-dong tomb group were the rulers of Dongnoguk, and Dongnoguk was the member who made the Gaya. This means that Yeonsan-dong tomb group is in the history of Gaya.

Keyword : Yeonsan-dong tomb group. Dongnoguk(瀆盧國). Isabu(異斯夫), Dadara(多多羅), incorporated

